



6·13지방선거 마지막 휴일인 10일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웅섭·바른미래당 전덕영·정의당 나경채·민중당 윤민호(위에서부터) 후보가 광주지역 주요거점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각 후보 선거사무소

## “한 표라도 더…” 표심잡기 총력전

### 후보들 마지막 주말·휴일 주요 거점서 막판 ‘지지 호소’

민주, 대세론 굳히기…미래, 견제 정당 선택  
평화, 텃밭 사수…정의, 48시간 릴레이 유세

6·13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여야 각 정당과 각급 후보들은 마지막 주말과 휴일을 맞아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휴일을 통해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의지를,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후보들은 광주·전남 격전지를 집중으로 여당 견제세력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1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여야 후보들은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소로 이끌어내는 한편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집중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 가고 있다.

지난 8일 추미애 대표와 중앙유세단은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목포·광양을 비롯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이웅섭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도 이날 오후 남구 백운광장에서 김병내 남구청장 후보와 합동유세를 통해 “6·13 지방선거 이후 광주가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하는데 시민 모두 함께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영록 민주당 전남지사후보도 주말과 휴일 무안과 나주·목포 등지를 찾아 지지세를 다지는 한편 접전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원유세를 펼쳤다.

야권은 민주당 독점구조를 깨고 지방정부와 지역정가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

힘있는 야당이 필요하다며 부동층 잡기에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평화당은 조배숙 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광주·전남 격전지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 대표는 영암과 무안, 장병원 원내대표는 완도와 진도·해남, 박지원 전 대표는 완도와 나주·목포에 이어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을 돌며 “평화당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도 전통시장과 가족단위 유원지, 도심변화가 등지를 돌며 유세와 거리인사를 통해 광역단체장과 광주 동구·광산구 등 전략지 출마자들을 지원했다

전덕영 바른미래당 광주시장 후보는 휴일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광주 패밀리랜드·광천동 유스퀘어·충장로 등을 찾아 “수십년 이어진 지방권력을 이번엔 교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광주시장도 48시간 릴레이 유세를 선언하고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

다.

11일에는 심상정 호남선대위원장이 다시 광주를 방문, 마지막 유세를 통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민중당도 손술공동대표와 중앙유세단 30여명이 광주를 방문했다. 손술공동대표는 “광주정치 싸움이 막아 달라. 민중당은 박근혜 독재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통합진보당을 이은 정통 진보정당이다”며 “광주시의회 견제세력으로 민중당을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광주·전남 시·도교육감 후보들도 부동층 잡기와 지지세 확보에 올인했다.

이날 이정선·장휘국·최영태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교회와 등산로, 거리유세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승리를 예측하기 힘든 고석규·오인성·장석웅 전남도교육감 후보들도 전남 곳곳을 돌며 한 표를 당부하고 지지세력 규합에 총력을 기울였다. /조기철 기자

## 광주·전남 사전투표율 ‘전국 최고’

### ‘박빙 선거’ 치열한 격전지 입증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광주·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무소속 등 야권이 치열하게 맞붙은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임이 다시 입증됐다.

1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8-9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전남은 전국평균 20.14%보다 월등히 높은 31.73%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체 전남 유권자 157만7,224명 중 50만468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전남지역 사전투표율은 18.05%로, 이번에는 1.75배 상승했다.

장성이 43.72%로 지역별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고흥 43.45%, 곡성 41.05%, 장흥 38.61%, 강진 38.51%, 구례 37.91%, 담양 37.79%, 신안 37.33%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현재 민주당에 맞서 야당·무소속 후보들이 경합 중인 선거구들로, 사전투표에서도 열기가 그대로 반영됐다.

각 후보들은 초반 승기를 잡는다는 전략아래 사전투표에서 최대한 조직력을 가동해 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도 유권자 117만2,429명 중 27만7,252명이 투표를 마쳐 6개 광역시 가운데 최고 투표율을인 23.65%를 기록

했다.

4년 전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 13.28%보다 10.37%포인트 높은 수치다.

광주지역 사전 투표율은 동구 28.92%, 서구 24.07%, 남구 24.22%, 북구 23.70%, 광산구 21.51%를 기록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도 영암·무안·신안 선거구가 32.29%로 가장 높았다.

광주 서구갑은 24.16%이며, 전국 12곳 재보선 평균 투표율은 21.07%를 기록했다.

/정근산 기자



## ‘세기의 빅딜’ 내일 개막

###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도착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간 ‘세기의 빅딜’이라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시작된다.

〈관련기사 4면〉

북미정상은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 샌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역사적인 담판을 할 예정이다.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단독회담으로 시작해 확대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당일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 배석자는 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의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 않은 채 서둘러 싱가포르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편으로 10일 밤 싱가포르 파야 레바르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날 오후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6분(한국시간 3시 36분)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47기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도착 직후 리센통 싱가포르 총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FINA, 광주수영대회 북한참가 지원

### 8일까지 대회준비 상황 중간점검 실무협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 참가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광주를 방문한 FINA(국제수영연맹) 대표단이 북한 선수단이 광주대회에 참가할 경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와 광주수영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코넬 마르클레스쿠 사무총장과 와킨푸울 시설위원장, 피터홀 TV부장, 롤루귀 마케팅담당관으로 구성된 FINA 대표단은 지난 6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광주수영대회 준비상황 점검 실무회의를 갖고 지난 8일 귀국했다.

FINA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광주시와 조직위로부터 수송·숙박·방송·식음료·경기장 설계·마케팅 등 각 분야별로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등을 청취했다.

특히 북한 선수단의 광주대회 참가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윤장현 조직위원장도 조영택 사무총장이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위한 FINA의 역할을 주문한데 대해 FINA 코넬 마르클레스쿠 사무총장은 “FINA 회원

국인 북한 선수단 참가에 따른 제반경비를 FINA 예산에서 특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넬 마르클레스쿠 사무총장은 “다 이빙과 아티스틱 수영에 우수한 선수가 많은 북한이 광주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회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이 방송권을 구입하지 않고도(무료로) 광주대회가 북한에 중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영택 사무총장은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화해와 협력 등을 통해 평화체제를 이루는 게 목표다”며 “광주가 역사적으로 민주·인권·평화를 지향해온 만큼 인류 평화 메시지는 전 세계적 관심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9년 7월 12일부터 28일까지(17일간) 2019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는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14일간) 200여개국 1만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부대·염주체육관에서 열린다. /조기철 기자

# 서대석을 응원해주세요!



사람사는 서구를 위해 투자해 주십시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후보 서대석 후원회장 송재구 배상

신협 : 131-019-699851 서구청장후보자 서대석후원회

후원 문의 010-5536-0157 이메일 lase@nate.com

이 신문광고는 「정치자금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집을 위한 것입니다